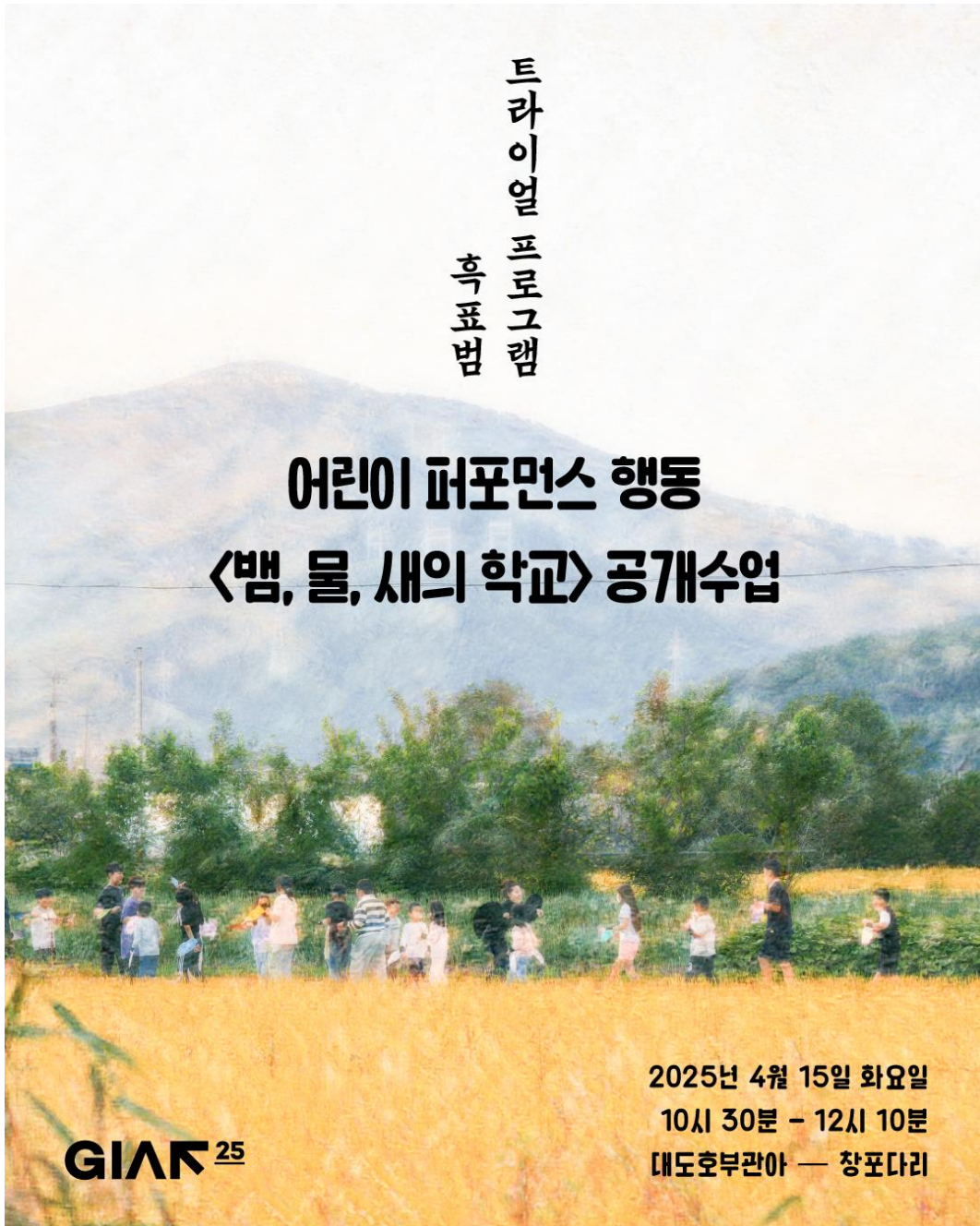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25) X 파마리서치문화재단 -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젝트

<뱀, 물, 새의 학교> 공개수업 참여 안내

- 2025년 4월 15일(화) 오전 10시, 강릉대도호부 관아-



관련 문의: <뱀, 물, 새의 학교> 교장, 예술가교사 후표범

(010-7613-8827 program@pharmaresearch.co.kr)

- **내용:** <뱀, 물, 새의 학교>의 첫 공개수업 및 퍼포먼스 행진
- **일시:** 2025년 4월 15일 (화) 10:30 - 12:10
- **장소:** 강릉대도호부 관아 - 창포다리 (10:30까지 대도호부 관아 집결 후 이동)
- **주최/주관:** 파마리서치문화재단 <https://culture.pharmaresearch.kr>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25) <http://giartfestival.com/>

안녕하세요.

저는 파마리서치문화재단에서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젝트<뱀, 물, 새의 학교>의 교장이자 예술가교사를 맡고있는 퍼포먼스 미술 작가 흑표범이라고 합니다.

이번 4월 15일에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25)과 파마리서치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젝트<뱀, 물, 새의 학교>의 첫 공개수업 및 퍼포먼스 행진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지역 사회의 유기견 문제를 탐구하고 예술적 퍼포먼스를 통해 비인간 생명들에 연대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 많은 시민들의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참여 신청 링크 : <https://forms.gle/3ykszbpnHqmpmj2k6>

○ 프로그램 소개

<뱀, 물, 새의 학교>는 어린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예술적 주체로 존중하며, 지역의 삶터에서 마주하는 질문을 예술적 상상과 실천을 통해 탐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퍼포먼스 미술 작가 '흑표범'과 강릉 운양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인간 중심의 세계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비인간 생명과 교감하며, 지역 유기견 문제를 주제로 퍼포먼스 행동을 펼칩니다.

○ 공개수업 및 퍼포먼스 주요 내용

- . **출발지:** 강릉대도호부 관아 마당 (윤석남 작가의 GIAF25 참여작 <1,025 : 사람과 사람 없이>에서 출발)
- . **행진 코스:** 창포다리까지의 거리 퍼포먼스 진행

퍼포먼스 행진 동선



관련 문의: <뱀, 물, 새의 학교> 교장, 예술가교사 흑표범

(010-7613-8827 program@pharmaresearch.co.kr)

. **퍼포먼스 컨셉:** 인간에 의해 버려진 존재들을 기억하고, 어린이들이 예술적 행위를 통해 생명의 존엄을 도시에 알리는 과정

. **세부내용:** 전체 2주로 구성된 트라이얼 프로그램으로, 한 주(4월 8일) 앞선 1차시에서 윤석남 작가로부터 영감을 얻어 강릉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들의 얼굴을 관찰하고 고유한 특징을 살린 가면을 만들며 이름없는 생명을 기억합니다. 취재를 요청 드리는 4월 15일 공개수업에서는 이렇게 유기견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 위에 더한 어린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집단 퍼포먼스로 시민들과 소통합니다. 가면을 쓴 어린이들이 시민 참여자들과 함께 대도호부 관아에서 서부시장 골목, 창포다리까지 이어지는 거리를 행진하며, 각자 지은 유기견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세상에 전하고 싶은 한 문장과 내가 절대 버릴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을 제창합니다. 창포다리에 도착하면, 여성주의 시인이자 동물권 활동가인 희음 시인의 시<장수는 장수다>를 나누어 읽으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시민참여자들은 어린이들의 행진에 동행하며,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연대합니다.

. **교사 공동체:**

  **교장, 예술가교사 | 흑표범 (퍼포먼스 미술작가)**

퍼포먼스 미술을 중심으로 드로잉,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소수자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의 연대를 몸으로 상상하고 확장합니다. 최근作品集 『입속의 험업자』를 출간했고, 《끝없이 갈라지는 세계의 끝에서》(서울시립미술관, 2024), 《불타는 집》(에스더쉬퍼 서울, 2024)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길잡이 교사 | 김기수 (강릉 운양초 교사, 지역 공동체 교육 실천자)**

강릉 운양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학교 밖으로 나갈 때 더 넓고 깊은 배움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지역 공동체 교육 실천자입니다. 운양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강릉청소년마을학교 날다>, <강릉청년커뮤니티 이음> 등 다양한 주제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조 교사 | 강현구 (강릉 독립서점 '윤슬서림' 운영자, 글쓰기 교육자)**

강릉에서 독립서점 '윤슬서림'을 운영하며, 숫자로 정의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멈추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표면장력의 마음> 글 메일링 서비스와 <자기만의 언어> 글쓰기 수업을 진행했으며, 현재 영동 MBC 라디오 <오후의 발견: 프롬 구 투 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조:

● 파마리서치문화재단은,

(재)파마리서치문화재단(이사장 박필현)은 글로벌 바이오기업 (주)파마리서치가 2018년에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재생'이라는 기업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 공헌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강릉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와 소통하며, 전시와 창작의 경험을 공유하는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을 기획했습니다. 강릉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강화하며, 강릉이 세계적인 문화·예술 관련 문의: <뱀, 물, 새의 학교> 교장, 예술가교사 흑표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적 가교로서 강릉의 생동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에서 출발한 <뱀, 물, 새의 학교>의 비전**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은 강릉의 역사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람과 예술을 이어주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강릉'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도시 공간들에서 시각미술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페스티벌은 2022년 《강릉연구》를 시작으로, 2023년 《서유록》에 이어 2025년 3월 '강릉 이야기' 3부작의 마지막인 《에시자, 오시자》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제2회 GIAF 《서유록》의 프로그램이었던 흑표범 작가의 퍼포먼스 워크숍 <뱀, 물, 새의 연습>에서 연계하여, 2025년부터 파마리서치문화재단의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젝트 <뱀, 물, 새의 학교>로 거듭났습니다. 과거 <뱀, 물, 새의 연습>이 지역의 이주배경 청소년, 산불 피해를 입은 마을의 어린이들이 한 예술가의 작업을 바탕으로 새의 몸짓을 상상하며 타자와 교감하는 인문적 성장을 지원하였다면, 지금 <뱀, 물, 새의 학교>는 강릉의 역사와 신화, 문화, 자연 지형과 기후, 동시대 이슈를 넘나들며 보다 지역과 깊게 밀착한, 살아있는 삶터에서 사유하고 실천하는 어린이 교육을 퍼포먼스 미술을 중심으로 구현합니다.

GIAF는 특히 이주민, 중년 여성과 같은 주변적 존재들을 퍼포머, 전시 도슨트, 다국어 통역 등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페스티벌의 한 축으로 초대하며 공동체의 경계를 넓혀왔습니다. <뱀, 물, 새의 학교>는 페스티벌이 생성한 현대의 가치를 흡수하여 지역의 문제를 어린이들과 실천하며, 축제와 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재생과 성장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는 파마리서치문화재단의 모토인 회복과 재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지역의 다음 세대를 다양성, 감수성을 통한 예술교육으로 창의적인 시민주체로 성장시키는 장기간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간 지역 학교의 인구 소멸 위기를 예술가와 안정적이고 독창적인 협업을 통해 대응하며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꿈꾸는 <뱀, 물, 새의 학교>의 주제**

<뱀, 물, 새의 학교>는 산간 지역 초등학교 안에 또 하나의 예술 학교를 여는 프로젝트로서, 다양한 지역구성원, 전문가들이 초대교사로 함께 하며 어린이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삶의 형태와 방식을 가진 어른들과 만나며, 지역에서 마주한 질문을 예술 행위로 마주하고 이러한 워크숍 과정을 기록작업으로 담아 다시 지역 사회에 환원합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뱀, 물, 새의 학교>의 큰 주제는 "사라져가는 것들을 몸으로 다시 상상하는, 지금 이곳의 어린이"입니다. 그 첫번째 과정으로 2025년은, 지역의 유기견 문제와 해안사구 침식 문제를 다루며 비인간 존재와의 교감을 배웁니다. 오랜 시간 강릉시는 피서철 경포대 등지에 개를 버리고 가는 잦은 사건들로 시차원에서 유기견 문제를 앓아왔습니다. 늘어나는 유기견들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2019년 강릉시 동물사랑 센터를 새로 준공하였으나, 현재는 이곳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공개수업은 이러한 지역 사회의 유기견 문제를 돌아보고 생명의 존엄을 발화하는 어린이 행동을 통해 앞으로의 프로젝트 방향을 선보이며, 지역과 네트워크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윤석남 작가의 GIAF25 참여작 <1,025: 사람과 사람 없이>에서 잇기**

윤석남 (b.1939) 작가는 여성 서사와 돌봄의 가치를 탐구하며,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1,025: 사람과 사람 없이>는 버려진 개들을 돌본 이애신 할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무 조각 위에 1,025마리의 개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번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에서는 1,025점 중 367점을 강릉대도호부 관아의 동헌 옆 마당에 설치했습니다. <뱀, 물, 새의 학교> 어린이들은 작품에 얽힌 이애신 할머니의 서사에서 출발하여, 윤석남 작가가 전하는 돌봄과 연대의 정신을 따라 생명의 존엄을 도시에 알리는 예술가가 되어봅니다.





관련 문의: <뱀, 물, 새의 학교> 교장, 예술가교사 흑표범

(010-7613-8827 program@pharmaresearch.co.kr)

No.	이미지	캡션
1-1		<p>운양초 어린이들이 제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25) 개막일에 방문하여 흑표범 작가와 함께 대도호부 관아 윤석남 작가 작품 <1,025: 사람과 사람 없이> 전시를 둘러보는 모습</p>
1-2		<p>운양초 어린이들이 제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25) 개막일에 방문하여 흑표범 작가와 함께 옛 함외과의원 전시를 둘러보는 모습</p>
		<p>운양초 어린이들이 제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25) 개막일에 방문하여 흑표범 작가와 함께 옛 함외과의원 전시에 입장하는 모습</p>


관련 문의: <뱀, 물, 새의 학교> 교장, 예술가교사 흑표범

(010-7613-8827 program@pharmaresearch.co.kr)

<p>2-1</p>		<p>산불로 인해 민둥산이 되어버린 강릉 옥계면의 모습(2023년 가을 촬영)</p>
<p>2-2</p>		<p>2023년 GIAF23 퍼포먼스 워크숍 <뱀, 물, 새의 연습>에 참여한 옥계 마을 어린이들과 흑표범 작가</p>
<p>2-3</p>		<p>2023년 GIAF23 퍼포먼스 워크숍 <뱀, 물, 새의 연습> 장면, 강릉 옥계면</p>
<p>3-1</p>		<p>2023년 GIAF23 퍼포먼스 워크숍 <뱀, 물, 새의 연습>에 참여한 강릉의 이주배경 청소년들</p>

관련 문의: <뱀, 물, 새의 학교> 교장, 예술가교사 흑표범

(010-7613-8827 program@pharmaresearch.co.kr)

<p>3-2</p>		<p>2023년 GIAF23 퍼포먼스 워크숍 <뱀, 물, 새의 연습>에 참여한 강릉의 이주배경 청소년들</p>
------------	---	---

관련 문의: <뱀, 물, 새의 학교> 교장, 예술가교사 흑표범

(010-7613-8827 program@pharmaresearch.co.kr)